

[알리는 말씀]

- * 오늘 예배 후에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 * 오늘은 정목사님의 개인일정으로 전교우 식사가 없습니다.
- * 8월 20일은 대관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 * 지난주일(7월30일) 헌금: 585,000원(주일헌금 115,000원, 통장헌금 47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8, 9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8월 13일	이춘우목사	윤혜정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아트컬리지5
8월 20일	온라인 예배			
8월 27일	김동호목사	오미영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5
9월 3일	정용섭목사	윤혜정집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지난주일(7월30일) 설교 발췌

제목: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 (마 13:31~33, 44~50)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거자씨와 누룩과 값진 진주와 그물 이야기에요 당연히 기쁨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쁨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을 찾으러 우주선을 타고 떠났던 우주비행사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내려서 지적 생명체를 처음 만나는 경험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았습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론적 기쁨을 안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어딘가 이상한 겁니다. 설교자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했으니, 죽음까지 포함한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8월6일

성령강림 후 10주
세계 교회력 「가」해 37주



김길연 집사가 8월 1일 대구성서아카데미 '포토갤러리' 방에 올린 사진 중의 한 부분이다. 그 꼭지 끝에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온다. “지난 유월 말부터 칠월 초까지 저의 작은 뜰에 아름답게 피어 있던 빨간 튼돌입니다. 오랜 비에 지금은 사라졌어요. 아쉬운 맘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아이들 모습 올려 봅니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천교 5시-5시20분/설교복기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사회자 (김기범 집사)

현대를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무한 성장과 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여기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송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1, 2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물을 창조하셨으며, 마지막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고, 성령이 참된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시급하거나 더 본질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항상 넉넉히 채우시며,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분할례 ... 다 함께

집례자: 우리가 이 빵을 떼서 서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회 중: 아멘.

집례자: 우리가 이 포도주를 서로 나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친교입니다.

회 중: 아멘.

간구기도 (하나님의 어린양) ... 다 함께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은혜를 내리어 주십시오.

성찬참여

집례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회 중: 아멘.

[집례자의 안내에 따라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다.]

감사기도 ... 집례자

감사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 (시므온의 노래) 3회 ... 다 함께



나 주 - 의 영 - 광 봤 으 - 니 념 치 - 는 구원 과 은 - - 헤 라

알림 ... 사회자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성찬예전

성찬찬송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5, 6절 ... 다 함께

준비기원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허락하신 이 빵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 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인간 노동의 열매로 허락하신 이 포도주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 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들판의 밀알이 변하여 빵이 되고, 포도밭의 포도송이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 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기를! 아멘.**

인사나눔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회 중: **목사님과도 함께 계십니다.**

집례자: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높입니다.

회 중: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니다.**

성령임재 기도 ... 집례자

성찬 제정사

집례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고전 11:23-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 중: **아멘.**

집례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회 중: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용기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깊이를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과 판단 안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함과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뢰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떼제찬송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 23장 (주님을 찬양하라) 3회 ...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
Lau - da - te om-nes gen-tes, lau - da - te Do-mi - num. Lau -

다 - te om-nes gen-tes, lau - da - te Do-mi - num. Lau -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1절 ... 다 함께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창세기 32:22~31 ... 김용성 집사

성서교독 시편 17:1~7, 15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들으소서 주님이여 들으소서 주님이여 부르짖는 저의기도 귀기울여 주옵소서
-저의입술 진실하니 정직함을 밝히소서 주님친히 판단하사 공평하게 살피소서
주님께서 나의마음 시험하여 보셨으며 밤새도록 살피시고 거듭살펴 보셨구나
-내입술은 순결하여 허물찾지 못하셨네 나는주의 말씀따라 바른길을 걸었다네
강포한자 가는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네 주가주신 옳은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네
-제가주님 찾으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의호소 귀기울여 들어줄줄 믿나이다
주님께서 피하는자 오른손을 내미시어 한결같은 주의사랑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의얼굴 뵈오리다 땃땃하게 뵈오리다 깨어나서 주님뵈때 그것으로 만족하니
-주님과 함께계심 그것으로 기뻐하리

둘째말씀 로마서 9:1~5 ... 김용성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14:13~21 ... 김용성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주님 말씀 복되어라) ... 다 함께

♩. = 70

주님 말씀 복되어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 사모하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설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 정용섭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84장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1, 2절 ... 다 함께

봉헌예전

신앙고백 니케아신조 ... 다 함께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헌금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